

## IV. IMF 시대를 넘는 지혜

### 1. 가계는 개혁의 산실

#### □ 위기의 가계 경제

최근 가계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7%를 상회하고 있다. 실직을 비관한 자살과 가정 파탄도 이제는 흔한 뉴스가 된지 오래다. 외환 위기 직후 정부는 가계의 '과소비'가 경제 파국의 주범이라며 절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계 경제가 과소비는 커녕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요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았다.

본원의 실사조사 결과 주요 내구재에 대한 구매의사는 지난해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중산층을 자처하던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빈민층이 되었다는 정신적 패배감에 싸여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감은 구매력의 감소보다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불황기에 오히려 저축률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절약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 급속한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는 것인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 □ 가계의 부실도 경제 위기의 원인

최근 부실 기업과 금융 기관의 퇴출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부, 기업, 금융 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과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가계도 노동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그들에 비해 그다지 나을 바가 없다.

우선 우리 가계는 노동의 공급자로서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발하기보다는 경직된 조직 내에서 수동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고임금과 고용 안정만을 요구했다. 또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투기적 기회를 엿보며 정열과 시간을 허비했다. 소비자로서의 가계는 더욱 부끄럽다. 무계획적이고 과시적인 소비 행태는 고급 또는

대형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와 날로 낮아지는 저축률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가계 또한 구조조정에서 열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가계가 겪고 있는 실업과 소득 감소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 그에 수반되는 고통일 뿐이다. 이제 우리 가계도 고통에 대한 인내를 넘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 가계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진정한 성공

정부가 가계의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가계 경제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여 퇴출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계는 스스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구조조정이 끝나면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은 곧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 법칙이 지배하는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력과 소비 행태가 과연 그러한 사회와 부합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근면, 성실, 충성과 같은 덕목들은 더 이상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고용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실을 떠나 학생 시절의 마음이 되어 자기 자신의 적성, 능력을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볼적 하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 및 저축 행태도 크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불안정한 고도 성장의 그늘 속에서 나타난 한탕주의와 무절제함으로는 더 이상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소득을 꼼꼼히 따져 지출하고 저축하는 자세를 체질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개별 가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도 공고히 하는 필요조건이다. 개별 가계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현재 우리 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진정한 성공과 지속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태 열 [tylee@hri.co.kr](mailto:tylee@hri.co.kr) ☎724-4012)